

연중 제11주일

제 1 독서 : 에제 17, 22-24  
제 2 독서 : 2고린 5, 6-10  
복 음 : 마르 4, 26-34

# 순정이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2고린 5, 9).

## 강론

### “성장되어 가는 하느님의 나라”

김 병 환 신부 / 복자 천주교회

갈릴레아 마을에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하느님의 나라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더불어 이미 시작된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나라를 기적과 비유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다.

지혜롭고 현명한자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에서 그 도래를 예고 하였고, 준비 하였으며 그 율곽을 묘사하고 있다.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한 백성을 축복과 인도, 보호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듯이 당신의 나라로 그들을 모아 들이신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지상적인 왕들의 야심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악과 대립되어 눈물과 피를 흘리는 역사를 지니게 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목자와 같이 당신 양떼를 이 아픔의 역사 안에서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 하시는데 몸소 보살피신다. 이에 그분의 나라는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의 흐름속에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간과 더불어 역사속에 성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씨앗, 겨자씨등의 비유를 들어 성장되어야 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이 점차 자라야 하는 것과 같이 밀 이삭처럼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성장되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작은 왕국은 하늘의 모든 새가 깃들일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베드로 위에 건립된 교회의 지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 작은 무리는 모든 민족들을 품안에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로는 그 나라가 빛나는 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마태 11,12)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하느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 그때 파스카가 성취될 것이요, 종말론적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루가 22, 17-18)

지금은 증언의 때요, 교회의 시대이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때를 기원해야하며 선한 생활로써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마태 6, 10).

## 소리

### “역사의 주체 세력”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던가?

똑같은 수법, 여전한 뻔뻔함으로 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한 폭력의 악순환은 풀릴 길이 없을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2년도 채 못되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한 교사들을 탄압하고 마지막까지 양심대로 행동한 교사들을 1500명이 넘게 해직시켜 생계를 어렵게 한 사람이 ‘결단력과 행정적 추진력’이 뛰어나다 해서 다시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도 양식있는 눈에는 슬픈 일인데, 그가 교수로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이 시대의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에게 달걀 밀가루 봉변을 당한 사건으로 드디어 민주인사검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도 부패한 광역의회 선거와 함께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현대사적 중병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정권은 인류역사상 보편적으로 역사후퇴의 역기능을 해왔으므로 새삼 논의할 바가 아니지만 6공의 이 정권이 임기를 채우기까지는 (아마도 대부분 중도 하야 사태는 예측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희생과 혼란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싶어 깊은 실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최근들어서는 그동안 의지해오던 큰 덕인들과 지성인들이 하나씩 평범한 자리로 눌러앉고 있어서 이제는 드디어 모든 이들이 제가끔 제자리에서 한몫씩을 단단히 해내야만 그것들이 뭉쳐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

인류역사는 역시 민중들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순정이 산책



### “오염된 밥상을 살리기 위해”

#### 1. 감사해야 할 음식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밥 안 먹으면 못산다는 역설이 전제된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그토록 중요한 먹거리의 오염문제는 위협한 정도를 넘어 이제 인간의 생명자체를 위협하고 갑아먹고 있다.

예전에는 맛있고 영양가많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모두의 바램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도 농약을 쳄느냐 안 쳄느냐,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먼저 따지게 되었다. 우리는 식사전 감사의 기도로 “주여 은혜로이 내려 주신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하고 음식을 먹게된다.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하고 먹어야 할 음식이 먹을거리가 풍족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농민이 소외되고 자연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공업우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업은 공업과 다르고 농산물-먹을거리는 공산품과 다르다. 농업을 공업과 같이 생각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뒷전에 뒹으로써 이 나라 농업 농민은 파탄의 구렁으로 내몰리고, 농산물-먹을거리는 농약오염에 범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농업정책은 다수확, 저곡가, 외국농축산물수입 등 농업, 농민 희생정책을 펼으로써 땅은 죽어가고 먹을거리는 농약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 2. 수입농산물과 소비자의 건강

정부는 수입농축산물로 국내 농산물, 소비를 충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고 식생활이 풍부해 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수입 농산물로 국민의 식생활이 풍부해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요즈음 우리가 대하는 먹을거리의 3/2 이상이 외국산 농축산물인데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수입육수수의 아플라톡신, 수입자몽 속의 알라, 수입쇠고기속의 성장촉진 호르몬제와 항생제 잔존등 발암물질 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수입농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생산단계에서 사용하는 유독농약의 문제와 산지로부터 한국까지 장기간 수송되는 사이에 투여되는 각종 방부제, 살충제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출이익만 위하여 안전성을 무시한채 농산물 생산에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환경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중 살균제의 90%, 제초제의 60%, 그리고 살충제의 30%에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발암성 농약 중 29개를 골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발암위험율이 가장 높은 15개 농산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토마토, 쇠고기, 감자, 콩, 완두콩, 당근, 닭고기, 옥수수, 밀, 포도, 오렌지 등이다.

둘째, 수입농축산물은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기 위한 농산물은 수확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부제, 살충제 농약을 사용, 훈증처리하여 보관 및 장기간 수송을 거쳐 국내에 도착하게 된다. 부산이나 인천부두의 수입곡물 하역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중의 하나는 방독면 착용인데, 훈증등의 방법으로 곡물이 실린 밀폐된 컨테이너 박스에 살포된 살충제나 살균제의 독성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질식되어 쓰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빵의 재료인 밀가루의 원료인 밀에는 마라치온 등 22개의 농약과 ‘레두란’이 수확후에 사용하도록 잠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레두란은 밀에 혼합시켜 야적시킨 상태에서도 80년 이상이나 벌레가 붙지 못할 정도로 독성과 잔류성이 강한 농약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도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쌀에도 레두란이 사용된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로 사용되어 악명을 떨치고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이 심각했던 2.4-D가 수확후에 뿌려진 레몬을 우리는 수입해다 먹고 있다.

#### 3.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편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각종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체에 지극히 유해한 여러 화학첨가물(향료, 색소, 보존료)등이 들어 있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직차로 죽여가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죽어가는 밥상을 되살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농민과 소비자는 함께 연대해 먹거리와 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도시소비자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며, 특히 교회에서는 도시 본당과 농촌본당, 공소와 결연을 맺고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만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모두가 안정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죽어가는 생태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농약 중독으로 부터 벗어나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땅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제공>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역  
☎ 84-7294

**우리전통**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기리아)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옆)  
☎ 85-8848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 84-2628

**주부사원모집**  
☎ 주 88-8027, 8028  
야 71-5827  
중앙동시무소 옆  
김금주(벨리도)  
(주)계몽사 남전주지사 창립

잡 관 /

“어느 수인(囚人)의 편지”

“늘 죄악의 그늘속에서 한많은 세상을 살아온 이 죄인이 신부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감옥속에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벌어들여 멋드러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공상아닌 망상속에 헛되이 살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님을 보내시어 백번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보살피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 신부님,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은 교도소 사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후(평화동) 신부님께 보낸 어느 수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앞에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한 순간의 잘못으로 감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형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야 한다는 성자(聖者)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보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주교도소에는 1800여명의 재소자들이 있는데 그중 200여명이 미사에 나오고 있고, 이들을 이신부님과 장수녀님 그리고 20여명의 후원회 회원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보람된 일에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교 구 소 식

교도소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6월 17일(월) 매월셋째 월요일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1층 강당. 후원회에 가입 합니다. (1구좌 1,000원) 국민은행 501-01-0454-480

※ 축! 견진: 동산성당 22일(토) 오후8시. 신태인 성당 23일(일) 오전10시30분

1. 재무 평의회: 19일(수) 오후2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2. 태아생명보호미사: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교구청 별관1층 문의85-5098 행복한 가정운동
3. 가톨릭 사진가협회 회원모집: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처-교구청 홍보국(85-0041)
4. 여자 켄 모임: 대상-모두(3켄~어른) 일시-30일 오후2시30분~5시 장소-가톨릭센터.
5.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 6월24일-27일(3박4일) 장소-송광야영장
6. 교구 중·고생 여름캠프: 7월 29일-31일(2박3일) 장소-송광야영장 신청-문의-7월6일 까지 교구청 교육국(85-0041) 선착순 300명에 해당되는 본당, 대상-중·고생
7. 전주교구 J.O.C 선배 60년~80년대 만남의 날: 오늘 오후 7시 교구청 별관 소강당.
8. 전례음악교육 '국악미사': 22일(토) 오전10시 강사-강수근수사 회비-8,000원 장소-가톨릭센터.

✦ 나궁열신부 부친 나상국(미태오) 6월4일 선종: 기도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순태 신부 주소변경: 1150 East Gypsy Lana./Tomson Towson MD, 21204/U.S.A.

Tel 301-321-0759.

※ 축! 영명: 성 알로이시오(21일) 이태주 신부 축하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6) 농기계는 공동 구입, 공동 사용을!

혼자 장만하기에 값이 비싼 농기계는 마을단위 또는 뜻이 맞는 신자들이 공동 구입해 사용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봅시다.

요심이(932) 김병오

검찰이요? 후보사퇴자를 철저히 조사해보시오

틀림없이 사퇴압력이나 협박을 받았을 것이고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그런것 잘못 조사하면 큰일난다구요?

직원채용공고

자격: 영세하지3년이상 용모단정하고 참신한 18세이상 여성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마감: 1991년 6월18일까지  
면접일자: 1991년 6월19일

전주교구청 관리국  
☎ 85-0041

신규직원채용

1.모집인원: 남0명 2.자격: 고졸(만29세이하) 시내거주자 병역필자 3.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출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신원증명서, 자격증사본(소지자) 4.접수마감: 1991. 6. 22 14시까지

전주임원시흥협동조합  
☎ 82-9295-7

“나자렛 예수 재매회”성소자모집

마살교구에서는 교구 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놓이온 성교 및 공소사목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해 나설것과 합니다. \*활동: 놓이온 성교 및 공소사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30세 미만의 고교 학력 이상인자로서 영세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신앙이篤실하고 건강한 미혼여성, \*문의처: (635-950)경남창녕군 성산면 문봉 2구 206번지

유 불 훈(바르블로메오)신부  
☎ (0559) 32-6295

결혼·약혼·파티복·남북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미르코)  
김 소 피 아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 1가 120-4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심익악기동서로판매장  
피아노·교회용전자올켄관·현악기면세판매  
(각종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상담)  
김 태 우 (일콜소)  
황 진 숙 (안젤라)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 88-7717. 88-771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슈너화  
이동화·특수화  
총판매장(공정거래)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초각, 송악곡 시거리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무선 호출기 20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날마다 그날 성서귀절을 한번더 읽으시다.**  
 1. 4월 영세자 모임: 오늘 후2시 교리실.  
 2. 부녀회 월례회: 19일 어머니미사후.  
 3. 천사의 모후 꾸리아 단장 객질: 김용환 단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복 단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4. 사무실 근무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2시~6시 저녁: 7시~8시, 휴무일: 월요일.  
 5. 주일헌금과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6. 금주 청소: 중노2가 8·9반, 차주청소: 중노2가 10·11반.  
 □ 지난주 봉헌금: 723,920원 □ 지난주 교무금: 802,000원

**\* 성정보수헌금 바람. \* 7월부터는 주일날 혼인없습니다.**  
 1. 성교회: 17일(월) 저녁6시.  
 2. 성교회: 19일(수) 오전11시.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2시.  
 4. 신자전화주소록 발간예정: 변경된 전화나 구역반 및 주소는 사무실에 연락바람.  
 5. 주일헌금 배가운동.  
 금주보수비헌금액: 1,650,000원 현재모금총액: 227,420,691원  
 금주보수비신입액: 없음 현재신입총액: 253,1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1,650,960원

**\* 목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후.  
 2. 부녀회: 20일 오전10시.  
 3.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오전9시.  
 \* 교무금 미납되신분은 완납 바랍니다.  
 \* 성당청소(22일): 다위의 팀Pr. 사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정현자 독서·봉헌-최재홍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봉헌-황선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96,660원 □ 교무금: 658,100원  
 □ 2차헌금: 259,590원

1. 축! 첫 영성체 어린이 46명; 힘조해 주신분들께 감사.  
 2. 전신자 성지순례에 힘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3. 성 빈센시오 참담총회: 22일 전10시, 회원모두 참석바랍니다.  
 4. 전례 담당자 연수회: 18일 후8시 독서·해설·봉헌자 전원.  
 5. 교도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7일 전10시30분, 센타 1층 강당.  
 6. 교적없는 교우와 쉬는교우 방문: 18일-8구역, 21일-11구역.  
 7. 회의: 청년회-오늘 후5시30분, 성교회-어머니미사 후, 올드레 아-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2시30분.  
 8. 사무장 휴가: 17일~21일까지, 용건은 수녀원에 문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48,340원 □ 교무금: 250,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증 석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성가정회, 청년회: 공식미사후.  
 2. 성서읽기: 루가9장~16장.  
 3. 반미사: 20일-1구역2반(상축음), 21일-1구역3반(하신광).  
 4. 청소봉사: 모든 성인의 모후.  
 5. 성교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신부님 영명축일: 24일 세례자 요한 대축일,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드립니다. 축하식-23일 공식미사후.  
 7. 금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 이옥동 ② 송정자  
 봉헌-오정규, 하태중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양대환 ② 김순이  
 봉헌-서병철, 김단오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51,000원 □ 교무금: 221,000원

1. 자모회: 오늘 미사후.  
 2. 첫 영성체 교리: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매일 오후6시.  
 3. 반모임: 19일(수) 오후2시30분-신일APT 오전10시30분-화산1가.  
 4. 청년회 모임: 29일(토) 오후8시30분, 대상-대학생, 청년(이제 서야 모이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랍니다).  
 5. 초등부교사 하계연수: 24일(월)~27일(목) 송광사 제2야영장.  
 6. 청소봉사: 자비의 모후Pr.  
 7. 금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형공임, 윤장호  
 차주 전례: 김옥희 독서·봉헌: 김혜화, 신정균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예수성심성월).**  
 1. 회의: ① 성교회-오늘 공식미사후 ② 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① 전례부-6월20일(목) 오후8시 ② 제대후원회-다음주 공식미사후.  
 3. 알릴: ① 봉성체-6월19일(수)(봉성체 모실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② 예비자교리-7월부터 예수성탄만 교리를 시작하오니 예비자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③ 반모임-25반-6월18일(화) 8시30분, 6반-6월19일(수) 후3시, 9반-6월19일(수) 후8시30분, 송원반-6월18일(화) 후2시. ④ 영세 및 첫영성체하신분 사진 찾아가서요(사무실에 있음).  
 □ 지난주 봉헌금: 665,720원 □ 교무금: 549,000원

**\* 예수 성심 성월(기도서 21쪽).** 사목회장 황 수 석  
 1. 모니카회: 수요일(19일) 오전10:30. 2. 테레사회: 수요일(19일) 오전10:30.  
 3. 꼬미씨들: 토요일(22일) 오후3시. 4. 꾸리아: 수요일(26일) 오전10시. 5. 성구좌: 다음주 일요일(23일) 오후2시 권주교대 테니스코트장  
 6. 예비자 교리안내 성탄반: ① 일요일-오전9:30 ② 목요일-오전10:30 ③ 금요일-오후8시. 예비신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7. 성가대(어머니)단장: 최명국 도미니카, 김금자 마리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가정방문: 계시관 참조 9.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3시.  
 \* 걸프난민을 위한 2차헌금: 435,950원  
 □ 지난주 봉헌금: 1,020,970원 □ 지난주 교무금: 1,64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일요일 교리반 개설: 매주일 오전9시.  
 2. 제대꽃 봉헌회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결산보고 및 다과회).  
 3. 교구성소 후원회 발족: 17일(월) 오전10시30분 센타.  
 4. 청소봉사: 효자마을, 안행동.  
 □ 지난주 봉헌금: 422,060원 □ 교무금: 539,000원

1. 사목회: 저녁미사후.  
 2. 두현공소미사: 21일(금) 저녁8시.  
 3. 6월중 철야기도 및 성령피정: 21일(금) 오후2시~22일(토) 오전4시30분, 장소: 효자우전, 치유기도: 서울교구 김마리아회장, 가르침: 서울교구 박프란치스코회장.  
 4. 반미사: 18일(화) 저녁9시 신주.  
 5. 성지순례: 23일(일) 7:00 출발.  
 6. 17일(월) 저녁8시부터 성지순례교육.  
 신축헌금 총신입액: 95,810,000원 봉헌액: 2,012,893원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임한영 ② 홍영란  
 기도① 조규명 ② 안귀래  
 □ 지난주 봉헌금: 830,350원 □ 교무금: 1,756,000원  
 □ 2차헌금: 399,500원